고시생 마음 어루만진 1년, 사람 남겼다

개소 1주년 맞은 노량진 마음충전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16일 호빵 500개 나눔
스님 · 불자들이 고시생 상담 진행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

매주 한차례 주먹밥 무료 배식
50여 학생 거쳐가며 불심 커져
"후원 절실, 청년포교에 관심을"



마음충전소를 후원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거리나눔 전 1주년 호빵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스님, 만약 제가 이 곳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공시생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 공시생 김 모씨

'헬조선' '5포세대' '청년취업난' 등 최근 청년들을 관통하는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결실을 맺고 있다. 노량진 고시촌에 위치한 마음충전소가 개소 1년을 맞은 것이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이사장 마가)서 운영하는 노량진 마음충전소가 2월 16일 개소 1주년을 맞아 4시간가량 노량진 거리에서 호빵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나눠진 호빵은 500개로 나눔행사와 함께 청년장학금 수여식, 마가 스님의 축하법문과 만트라 명상, 마음충전소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다.

마음충전소는 설립 초기지만 고시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연 50여 명이 이용하고, 4명의 학생들이 불자로 계를 받는 등 반향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1호 합격생도 나와 김포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합격 후에도 충전소에 나와 명상을 하고 가곤 한다.

자비명상 마음충전소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자비명상 회원의 사연을 들은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에 세운 청년쉼터다.

현재 등명 스님이 소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음충전소는 7~8명이 이용할 수 있는 10평 남짓한 공간에 마음충전텐트와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다실로 구성돼있다.

마음충전소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매주 월요일 무료 청년 요가 강좌가 진행된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는 무료 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몸충전 사찰음식 체험, 재미있게 배우는 온전한 휴식법, 쉽게 배우는 몸건강 마음건강법 등 경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또 소망전념 프로젝트와 마음치유 걷기명상을 비롯해 매주 화요일 점심에는 따뜻한 밥한끼 보시 행사와 거리 주먹밥 나눔 행사도 열린다.

마음충전소 소장 등명 스님은 "매주 나온 학생은 5명 가량이고, 틈틈이 나오는 학생까지 하면 50여 명에 달한다"며 "향후 서울시 등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시생 마음건강 콘서트, 마음카드 제작을 비롯한 상담에 힘쓰고 현재 진행중인 카툰을 통한 마음근력 키우기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음충전소의 월세나 전기세를 비롯한 제반비용과 운영은 모두 후원자들의 기부로 이뤄진다. 충전소 청소나 행사 진행도 재능기부와 봉사로 이뤄진다. 마음충전소는 이를 위해 봉사자인 '마음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 모씨는 "마음충전소 봉사자 분들이 모두 저희를 학생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님' 등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회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신다. 이 곳 학생 대부분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데 부모님처럼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인근 강남교회의 경우 노량진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밥을 무료로 제공해 1000여 명이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한다. 가톨릭도 이지역에서 아낌없이주는나무CAFE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 고시원 등 청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난 아픔 보듬는 튼튼한 울타리 되길"

조계종복지재단, 네팔에 내진 설계 대피소 건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자연재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네팔 주민들을 위해 내진 설계된 대피소를 건립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2월 13일 네팔 현지를 방문해 '네팔 다딩지역 하자레가웅 다목적 대피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칼파나 아드시카리 지역대표, 라케스 현지 협력단체 EPF 대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를 재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대피소를 짓게 됐다. 마음을 내어 변화를 이끌어준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두려움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안전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더 많은 예비초등생 책가방 선물을"

아름다운동행 · KB국민카드, 저소득층 2,166명 대상 지원

조계종 사회공익기관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가정 예비초등생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전달식을 열고 2166명의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올해는 작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에게 지원받아 약 600명이 더 책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서 이사장 원행 스님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불교에서는 물건을 깨끗이 하고, 돕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보답과 상관없이 보시한다는 4가지 원칙이 있다. KB국민카드 임직원들과 봉사자, 스님 모두 이 같은 마음으로 선물을 포장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이 5년째 동참이다. 회사가 건재하는 한 선재의 책가방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62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 정신 새겨 훌륭한 인물 되길"

동국대, 18일 졸업식… 2,627명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8일 본관 중강당에서 2019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963명, 석사 540명, 박사 124명 등 총 2,62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악을 졸업한 수많은 동문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그분들의 발걸음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다"며 "여러분은 어디에 나아가든 동국의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이 사회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길 기대한다. 모교 역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새터민 출신 최초 출가자인 도현 스님이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2009년 한국 땅을 밟은 뒤 북한산 덕륜사에서 출가한 도현 스님은 재학 중 '통일 하울림' 동아리를 만들고 새터민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월 20일 수요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1,357명, 석사 58명, 박사 2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7명 등 총 1,42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각 종단 종립대학들도 잇달아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천태종립 금강대와 진각종립 위덕대는 2월 21일, 중앙승가대는 2월 22일 각각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위원회 통합 재편

2월 21일
제5기 포교 · 신도위원회 위촉

위원장에 혜거 · 지현 스님
신도종책과 포교연구 분야 통합
미래 포교 위한 역량 확대 주력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왼쪽)이 신도연구위원장 지현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종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산하 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3개 분야를 2개로 통합시키고 종책 연구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기 포교위원회 및 신도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연 데 이어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부터 산하에 포교, 신도종책, 포교연구 등 3개 분야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왔다. 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올해부터는 포교, 신도연구로 재편됐다.

이 중 포교위원회는 포교제도 개선을 위한 종법령 개정안 검토 심의 및 각종 사업을 제안, 검토한다. 또 신도연구위원회는 신도종책과 연구분야를 관장한다. 신도종책과 포교연구위원회의 통합은 양 위원회의 활동이 연구분야로 유관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제5기 포교위원회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을 위원장으로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 백도수 능인대학원 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제5기 신도연구위원회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회의원 화평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선업 스님, 종회의원 상덕 스님, 정관 스님,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원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원이 포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포교종책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합 발족된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은 "현재 포교원은 20년 설계와 신행혁신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 것을 밝힌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신행혁신 등 전법포교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우리말 생활의례 공모를 통해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과 지도교사들이 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노덕현 기자



